

## 연결감사품질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최연식(제1저자)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박사과정  
 (choicex2@snu.ac.kr)  
 나경원(제2저자)  
 삼정회계법인 공인회계사  
 (nkw21c@yahoo.co.kr)  
 최중학(교신저자)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부교수  
 (acchoi@snu.ac.kr)

본 연구는 연결감사품질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타감사인 의존도와 연결감사업무의 복잡성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연결회사 감사인과 종속회사의 감사인이 서로 일치하지 않을 경우, 감사인간 의사소통의 효율성이 저하되어 감사현장에서 발견된 회계적 이슈나 감사위험에 대한 정보의 공유 및 지식의 이전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게 된다. 따라서 타감사인의 의존도가 높을수록 연결감사품질은 하락할 것이다. 연결재무제표는 연결회사와 종속회사를 통합하여 하나의 경제적 실체로 표현하는 과정이므로, 종속회사가 많아지거나 연결회사간 내부거래가 증가할수록 연결과정은 복잡해지고 정보비대칭성은 증가할 수 있다. 따라서 연결감사업무의 복잡성이 증가할수록 연결감사품질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타감사인 의존도도는 연결재무제표 중에서 타감사인이 감사한 총자산비중, 매출액비중 및 타감사인 수를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연결감사업무의 복잡성을 종속회사 수, 연결회사간 내부거래의 규모 및 이로 인한 채권·채무의 규모로 측정하였다. 연결감사품질을 판단하는 측정치는 성과조정 재량적 발생액(performance-adjusted discretionary accruals)을 이용하였다. 실증분석시 연결재무제표에 나타나는 특수한 요인들만을 고려하기 위해서 개별재무제표에서 계산한 개별 기업의 감사품질을 통제한 후 분석을 수행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타감사인이 감사한 총자산비중 및 매출액비중과 타감사인 수는 재량적 발생액과 유의한 양(+)의 회귀계수를 보였다. 또한 종속회사의 수 역시 재량적 발생액과 유의한 양(+)의 회귀계수를 나타내어, 예측과 일치하는 결과를 얻었다. 다만, 연결회사간 내부거래의 규모 및 채권·채무의 규모는 재량적 발생액과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주제어: 연결재무제표, 감사품질, 타감사인 의존도, 감사업무 복잡성

### 1. 서론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금융감독당국 주도로 기업회계의 선진화를 위한 노력이 진행되어 왔다. 이러한 노력은 회계의 투명성을 높이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과 함께, 전 세계 자본시

장이 국제화되는 추세에 발맞추어 회계기준의 국제적 정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는 2006년 2월에 관련부처, 기업대표, 회계전문가 등으로 국제회계기준 도입 준비단을 구성하였으며,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한국 회계기준원과 공동으로 2007년 3월 15일에 국제회계기준 도입 로드맵을 발표하였다.<sup>1)</sup> 회계기준의

논문접수일: 2009. 2      게재확정일: 2009. 11

\* 본 논문은 제1저자의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을 개선 및 발전시킨 것이다. 저자들은 본 논문에 많은 도움을 주신 익명의 두 심사자와 서울대학교의 박승근, 백복현, 안태식, 이창우, 정운오, 황이석 교수에게 감사를 표한다. 세 번째 저자는 삼일 회계법인으로 부터의 연구비 지원에 대해서도 감사의 뜻을 표한다.

1) 국제회계기준 도입을 위한 로드맵에 따르면, 국제회계기준은 원칙적으로 상장기업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비상장기업은 별도의 간략한 회계기준을 제정하여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국제회계기준은 2011년부터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며(회계기업은 2009년부터 적용

글로벌 스탠다드인 국제회계기준(IFRS,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의 도입은 우리나라 기업의 회계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국제적 신뢰도가 개선되고, 나아가 코리아 디스카운트(Korea discount)를 상당부분 해소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국제회계기준이 한국의 기존 회계기준과 다른 가장 큰 특징은 연결재무제표를 주재무제표로 채택하는 것이다. 연결재무제표는 동일한 지배구조에 속한 모든 기업을 하나의 기업실체로 간주하여 이들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를 이해관계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개별재무제표가 주재무제표였으므로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관심이 그리 크지 않았으며, 그 결과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되지는 않았다.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연구는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이루어졌는데, 첫째는 재무비율분석을 통해 연결재무제표와 개별재무제표의 차이를 조명하는 것(정종암·김지홍, 1991; 김지홍, 1995 등)이었고, 둘째는 연결재무제표가 주식시장에서 투자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검증(정규언·김정원, 1994; 전성빈, 1994; 황인태, 1995; 김종대, 2000 등)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연결재무제표와 관련하여 감사품질이 어떠한지에 대해서는 연구가 수행된 적이 없다. 본 연구는 개별재무제표에서 계산된 감사품질을 통제 한 후, 연결재무제표에서 계산된 연결감사품질에 추가적으로(incrementally)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연결감사품질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연결감사업무 및 감사대상회사 측면에서 두 가

지 가설을 설정하였다. 첫째,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타감사인의 의존도가 높을수록 연결감사품질은 하락할 것으로 예측된다. 높은 수준의 연결감사품질은 회계감사현장에서 발견된 회계적 이슈들과 개별 종속회사의 감사위험에 대한 정보를 충분하고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연결회사 감사인과 종속회사 감사인이 서로 공유하면서 감사업무를 수행할 때 비로소 확보될 수 있다. 이것은 비감사업무가 지식전이(knowledge spillover)를 통해 감사의 효율성을 제고(Simunic, 1984; Palmrose, 1986)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종속회사 감사팀과의 의사소통이 연결재무제표 전체 수준에서 감사팀간 지식전이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효과는 지배회사와 종속회사의 감사인이 동일감사인 일수록 보다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연결회사의 감사인과 종속회사의 감사인이 서로 일치하지 않을 경우, 이러한 충분하고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기대하기 어렵게 된다. 둘째, 연결감사업무의 복잡성이 증가할수록 연결감사품질은 하락할 것으로 예측된다. 연결재무제표는 연결회사와 연결대상 종속회사를 통합하여 이들을 하나의 경제적 실체로 표현하는 과정이므로, 종속회사의 수가 많을수록 연결과정은 보다 복잡해질 수 있다. 또한 연결회사간 수익 및 비용거래의 규모, 이러한 거래의 결과로 발생하는 채권 및 채무의 규모가 클수록 그 정도는 심화될 수 있다(김지홍·유용상, 2008). 이때 연결감사업무의 복잡성은 감사위험으로 연결될 수 있는데, 다각화된 영업부문을 통합하는 경우 정보비대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Habib et al., 1997).

본 연구에서 이러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기

을 허용). 본·반기연결재무제표는 기업능력 등을 고려하여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은 2011년부터, 2조원 미만인 기업은 2013년부터 작성하도록 할 예정이다.

존의 개별재무제표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 사용한 변수에 추가하여 연결재무제표 및 연결감사업무에서 특별하게 발견할 수 있는 설명변수를 선정하였다. 즉 타감사인의 의존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연결재무제표 중에서 타감사인이 감사한 종속회사의 총자산 비중과 매출액 비중, 그리고 타감사인의 수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연결감사업무의 복잡성을 측정하기 위해 연결실체에 포함되어 있는 종속회사의 수와 연결회사간 내부거래의 규모 및 채권·채무의 규모를 사용하였다. 또한 연결감사품질은 많은 선행연구와 동일하게 성과조정 재량적 발생액(performance-adjusted discretionary accruals)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또한 연결재무제표에 독특한 요인들을 분석하기 위해서 실증분석시 개별재무제표로부터 계산한 개별기업의 재량적 발생액을 통제변수로 포함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타감사인이 감사한 총자산 비중과 매출액 비중 및 타감사인 수는 재량적 발생액과 유의한 양(+의 회귀계수를 보였으며, 종속회사 수 또한 유의한 양(+의 회귀계수가 도출되었다. 이러한 발견은 모두 예측과 일치한다. 다만 연결회사간 내부거래의 규모 및 채권·채무의 규모는 재량적 발생액과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이들 두 변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상계제거되는 항목들이니 만큼, 연결재무제표에서 발생액의 계산에 필요한 현금흐름이나 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개별재무제표의 재량적 발생액 수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연결재무제표의 재량적 발생액 수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결과는 연결감사에 있어서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통한 감사인간 정보의 공유 및 지식의 전이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연결재무제표를 감사품질 측면에서 접

근하여 관련 연구분야를 확장하였다는 점과 연결재무제표 및 연결감사업무와 특수하게 관련된 요소들에 주목하여 연결감사품질을 결정하는 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는 공헌점을 갖는다. 또한 연결회사 감사인과 종속회사 감사인간의 효율적인 의사소통과 지식전이 효과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다는 측면에서, 기업, 회계법인, 감독기관 및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들에게 의미 있는 공헌을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발견은 향후 국제회계기준의 도입과 관련하여, 연결감사 품질수준을 과거의 개별재무제표 감사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고려해야할 요인을 보여주기 때문에 특히 유용하다고 판단된다. 감독기관이나 회계법인들은 본 연구의 발견을 참고하여 연결감사품질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 마련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며, 학계에서도 이제 연구의 초점을 개별재무제표가 아니라 연결재무제표로 돌려야 하는 시점이라는 측면에서도 본 연구는 이 분야 후속 연구들의 진행을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이후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Ⅱ장에서는 본 연구와 관련한 선행연구들을 검토하고, 이를 기초로 제Ⅲ장에서는 본 연구의 가설을 제시한다. 제Ⅳ장에서는 가설검증 흐름과 연구모형에 이용될 변수들을 정의하고,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연구모형의 설정 및 관련 변수의 측정에 대해서 설명한다. 또한 표본기업의 선정 기준에 대하여 논의한다. 제Ⅴ장에서는 실증분석결과를 제시하고, 마지막 제Ⅵ장에서는 결과를 요약하고 결론과 한계점을 제시한다.

## II. 선행연구의 검토

본 연구는 감사품질의 결정요인을 연결재무제표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미국 등 다른 나라에서는 연결재무제표가 주재무제표이므로 감사품질에 대한 연구는 자동적으로 연결재무제표를 기초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개별재무제표가 주재무제표 이므로 기존의 감사품질에 대한 연구는 주로 개별재무제표를 중심으로 수행되어왔다. 그 결과 연결재무제표의 감사품질에 대한 연구는 기존에 이루어지지 못한 실정이다. 다음에서는 본 연구에서는 다루고 있는 감사품질 및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선행연구를 검토한다.

### 2.1 감사품질과 관련한 선행연구

DeAngel(1981)가 감사품을 감사인이 감사대상회사의 재무제표에서 부정이나 오류를 발견할 가능성과 발견한 부정이나 오류를 보고할 가능성의 결합확률로 정의한 이후로 감사품질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감사품질과 관련된 연구는 크게 감사품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와 감사품을 결정하는 요인은 무엇인가라는 두 가지 연구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감사품질과 관련한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감사품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감사업무의 특성상 품질을 직접적으로 측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많은 연구들이 감사품질의 간접적인 대용치에 주목하였다. 선행연구에서는 감사투입시간과 감사보수를 감사품질의 대용치로 사용하거나(최관·백원선, 1998), 소송사건의 결과(Palmrose, 1988 등), 회계감독기관의 감리결과(정석우, 1998 등), 전기손익수정항목의 빈도와 규모(김문철·황인태, 1998), 감사의견(Francis and Krishnan, 1999; 나종길·최기호, 2001 등) 등 다양한 변수를 이용하여 감사품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감사품질의 대용치들이 소수의 기업에 한정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sup>2)</sup> 보다 종합적인 연구를 위해서는 모든 기업에 동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재량적 발생액(Becker et al., 1998; Francis et al., 1999)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한편, 재량적 발생액을 감사품질의 대용치로 사용한 연구들은 주로 감사대상회사에 대한 감사인의 경제적 의존도를 고려한 감사인의 독립성, 경영자의 이익조정 동기, 감사인의 능력, 소송위험 등과 같은 감사위험 등이 감사품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보고하였다. Becker et al.(1998)은 감사품질과

2) 예를 들어, 감사의견의 경우 비적정의견을 받은 기업의 수는 소수에 불과하다. 이와 유사하게 전기손익수정을 하는 기업, 소송에 걸리는 기업, 감리적외를 받는 기업의 수도 매우 소수이다. 즉 이러한 사건들은 감사품질이 매우 저해된 예외적인 경우에만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모든 표본을 대상으로 일반화 하는 데는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거의 대부분의 기업들이 아무 문제가 없는 동일한 종류(homogeneous) 기업들로 분류되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분석대상 범주에 해당되는 표본의 수가 이런 경우들처럼 작으면 통계적 검정력(statistical power)가 부족하여 실증분석 결과를 신뢰하기가 어렵다(최종학 2008). 이에 비해 재량적 발생액은 모든 표본마다 가지는 값이 거의 다른, 일반화되기 쉬운 측정치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Myers et al. 2003). 따라서 Basu(1997)가 개발한 기업의 보수주의 성향과 더불어 재량적 발생액은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보수주의 성향은 직접적으로 감사인의 업무범위와 관련되지 않는데 반해 재량적 발생액은 감사인의 감사결과에 따라 그 산출물이 달라진다는 차이점이 있다. 즉 보수주의 성향과 재량적 발생액의 수준은 모두 재무보고의 품질을 나타낼 수 있는 척도이지만, 재량적 발생액은 감사품질과 보다 더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재량적 발생액을 이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익조정 사이의 관계를 조사하였는데, non-Big 6 감사인이 감사한 회사의 재량적 발생액이 Big 6 감사인이 감사한 회사의 재량적 발생액 보다 크다고 보고하였다. Francis et al.(1999)은 Big 6 감사인이 감사한 기업의 총발생액은 non-Big 6 감사인이 감사한 기업의 총발생액 보다 더 많지만, 재량적 발생액은 오히려 더 적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Big 6 감사인들이 자신들의 높은 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더 보수적인 감사기준을 적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내에서는 박종일 등(1999)이 재량적 발생액을 통해 감사인의 규모에 따른 감사품질을 연구하였다. 이들은 감사인을 규모에 따라 Big 6, local Big, local Small로 구분하고, Big 6와 local Big의 감사품질이 local Small의 감사품질보다 우수하다고 보고하였다. 황인태·강성민(2007)은 기업을 자산규모별로 5단계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중소 상장기업의 경우 local Big 감사인과 local Small 감사인이 감사한 회사의 재량적 발생액은 Big 4 감사인이 감사한 회사의 재량적 발생액보다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대기업의 경우에는 Big 4가 감사한 회사의 재량적 발생액이 가장 작게 나타났다. 이것은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local Big 감사인이나 local Small 감사인의 감사품질이 Big 4 감사인 보다 우수하지만 대기업의 경우에는 Big 4 감사인의 감사품질이 더 좋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 감사환경에서 기업규모별로 최적 감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감사인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는 국내 많은 연구들에서 Big 4 감사인의 감사품질의 우월성이 일관되게

증명되지 않은 이유를 암시하고 있는 발견이다.<sup>3)</sup>

## 2.2 연결재무제표와 관련한 선행연구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연결재무제표와 관련한 초기의 연구들은 주로 비율분석을 통해 연결재무제표가 제공하는 재무정보의 특성과 관련한 것이었다(정종암·김지홍, 1991; 김지홍, 1995; 정연해, 1996). 이후에는 주로 연결재무제표의 유용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 거래량분석(황인태, 1995)이나 누적비정상수익률분석 및 잔여이익분석(전성빈, 1994; 송인만 등, 2001; 김권중 등, 2001; 신현걸·이만우, 2002; 김권중·나인철, 2002; 신현걸 2008) 등이 수행되었다. 이들 연구는 연결재무제표의 유용성에 대한 다양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처럼 연결재무제표의 감사품질에 대해 살펴본 연구는 존재하지 않는다.

## III. 연구가설의 설정

연결재무제표의 경우, 연결회사의 감사인과 연결대상 종속회사의 감사인이 서로 일치하지 않을 수가 있다. 이런 경우에도 연결회사의 감사인은 타감사인이 감사한 연결대상 종속회사의 재무제표를 포함하여 전체 연결재무제표에 대해서 주감사인으로서의 책임을 지게 된다.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감사기준에서는 타감사인을 활용하는 경우 타감사인의 전문직업인으로서의 능력을 고려하고, 타감사인

3) 기타 국내에서 재량적 발생액을 이용하여 감사품질에 대해 조사한 연구로는 감사인의 비감사서비스 제공, 감사인 지정제도, 감사인 유지제도, 감사인 교체 등의 주제로 다양하게 수행된 바 있다.

이 수행한 업무에 대한 감사증거를 확보하며, 타감사인이 발견한 중대한 사항의 고려 및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여 타감사인의 감사결과를 문서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sup>4)</sup> 그러나 이러한 절차들은 주감사인 입장에서 감사위험을 통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일 뿐, 감사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충분조건은 아닐 수 있다. 높은 수준의 연결감사품질은 회계감사현장에서 발견된 회계적 이슈들과 개별 종속회사의 감사위험에 대한 정보를 충분하고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연결회사 감사인과 종속회사 감사인이 서로 공유하면서 감사업무를 수행할 때 비로소 확보될 수 있다. 이것은 비감사 업무가 지식전이(knowledge spillover)를 통해 감사의 효율성을 제고(Simunic, 1984; Palmrose, 1986)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연결재무제표 감사시 감사팀간 지식전이 효과는 동일 감사인이 연결회사와 종속회사를 모두 감사할 경우에 보다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비록 연결회사와 종속회사의 감사팀이 다르더라도, 동일한 감사인(회계법인을 의미함)이라면 연결일정의 조정 및 연결실체 전체 차원의 내부적인 의사소통이 타감사인을 이용하는 경우보다는 수월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또한 동일 감사인들은 표준화된 감사방법과 내부규정 및 검토절차(review process)를 적용하기 때문에 감사품질을 일정수준 이상으로 향상시키려는 노력도 타감사인이 포함된 경우보다 더욱 수월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타감사인의 의존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타감사인의 의존정도가 높을수록 연결감사품질이 낮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분석하고 있는 연결재무제표는 연결회사와 연결대상 종속회사를 통합하여 이들을 하나의 경제적 실체로 표현하는 과정이다. 이를 위해서 투자와 자본을 상계제거하고, 연결실체간의 내부거래를 제거하며, 중요한 회계정책의 불일치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불일치를 해소하고, 소송사건과 지급보증 등과 같은 중요한 공시사항을 연결실체 전체 수준에서 파악하는 등의 절차가 수행된다. 따라서 종속회사의 수가 많을수록 연결과정은 보다 복잡해질 수 있으며(Simunic, 1980), 연결회사간 수익 및 비용거래의 규모, 그리고 이러한 거래의 결과 발생하는 채권 및 채무의 규모가 클수록 그 정도는 심화될 수 있다. 여기서 연결감사업무의 복잡성은 감사위험으로 연결될 수 있다. Habib et al.(1997)이 지적하였듯이 다각화된 영업부문을 통합하는 경우에 정보비대칭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정보비대칭을 이용하여 경영자는 이익을 조작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김지홍·우용상(2008)은 개별재무제표의 경우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금액이 클수록 재량적 발생액이 증가하는 현상을 발견함으로써,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많을수록 경영자의 이익조정 유인이 증가한다고 보고하였다. 이런 연구결과와 유사하게, 연결재

4) 우리나라에서는 외부감사인이 회계감사기준위원회에서 공고한 "회계감사 실무지침 3-780: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실무지침(제정 2005년 12월 22일, 개정 2006년 9월 8일)"의 규정에 따라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동 실무지침 "[문단 6] 세부감사계획의 수립"에서는 감사인이 전반감사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 타감사인 또는 전문가의 참여정도까지도 고려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문단8] 연결재무제표 입증절차"에서는 구체적인 절차를 제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규정은 부록1과 부록2에 제시하였다.

무제표 수준에서는 연결회사간 내부거래 및 기타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많을수록 감사품질이 하락할 것을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결감사업무의 복잡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2: 연결감사업무의 복잡성이 증가할수록 연결감사품질이 낮을 것이다.

## IV. 연구설계

### 4.1 가설검증 흐름과 설명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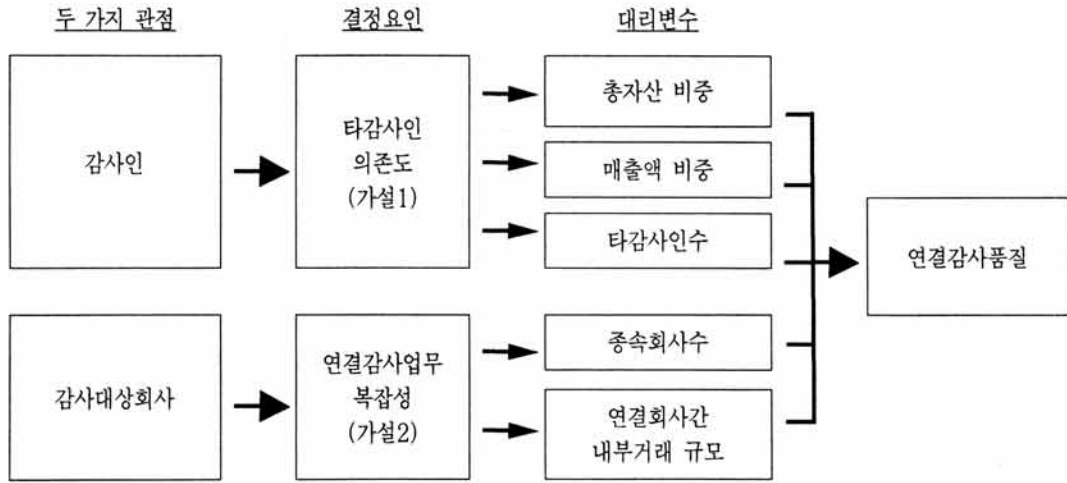
본 연구의 목적은 연결감사품질을 결정하는 요인을 두 가지 관점, 즉 연결감사업무의 성격 및 감사대상회사의 특성 측면에서 조사하는데 있다. <그림 1>은 본 연구의 가설검증흐름을 명시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연결감사업무를 수행하는 감사인 관점에서 타감사인의 의존정도가 높을수록 연결감사품질은 하락할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연결제무제표 중에서 타감사인이 감사한 종속회사의 총자산 비중(*ASSETCOVER*)과 매출액 비중(*SALESCOVER*), 그리고 타감사인의 수(*OTHER*)를 설명변수로 선정하였다. 타감사인의 의존정도를 나타내는 이들 자료는 금융감독원 공시자료실에 공시된 기업별 연결감사보고서의 본문 및 주석에서 직접 추출하였다. 타감사인 수는 종속회사를 감사하는 타감사인

의 숫자를 나타내는 변수로서, 단순히 숫자만을 고려하므로 종속회사 중 얼마나 중요한 회사를 타감사인이 감사하는지를 나타내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또한 종속회사의 숫자가 늘어남에 따라 타감사인의 숫자도 기계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총자산비중이나 매출액비중은 상대적으로 이런 단점을 가지고 있지 않은 측정치이다. 총자산비중은 대차대조표 관점에서, 매출액비중은 손익계산서 관점에서 타감사인이 감사하는 자회사의 비중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이다.

다음으로 감사대상회사의 관점에서 연결감사업무의 복잡성이 증가할수록 연결감사품질이 하락할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연결실체에 포함되어 있는 종속회사의 수(*SUBSIDIARY*)와 연결회사간 내부거래의 규모(*TRANS*) 및 채권·채무의 규모(*ARAP*)를 설명변수로 사용하였다. 연결감사업무의 복잡성을 나타내는 자료 또한 연결감사보고서의 본문 및 주석에서 직접 추출하였다. 종속회사 수는 자연로그를 취하여 사용하였으며,<sup>5)</sup> 내부거래의 규모(*TRANS*)는 연결회사간 매출거래, 매입거래, 기타수익거래 및 기타비용거래를 모두 합한 금액을 연결총매출액으로 나누었으며, 채권·채무의 규모(*ARAP*)는 연결회사간 채권 및 채무를 합한 금액을 연결총자산으로 나누어 측정하였다. 연결대상 종속회사의 숫자가 늘어나면 다양한 회계처리 방법과 내부통제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종속회사들을 감사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종속회사간 내부거래의 규모가 크면 이익조정의 가능성이 높으므로(김지홍·우용상 2008), 감사인의 업무가 더 복잡해 질 수 있다.

5)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조의3 제2항 1호에서는 외부감사 대상이 아닌 종속회사는 연결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연결제무제표에 포함된 모든 종속회사의 개별제무제표는 감사받은 재무제표가 된다.



〈그림 1〉 가설검증흐름

#### 4.2 통제변수

일반적으로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는 연결회사의 개별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절차가 종료된 후에 연결조정사항에 대한 추가적인 감사절차를 수행함으로써 이루어진다. 따라서 연결회사의 개별재무제표에 대한 감사품질과 연결재무제표의 감사품질 사이에 높은 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sup>6)</sup> 따라서 연결회사의 개별재무제표에서 측정된 개별회사의 성과조정 재량적 발생액(*ADJIDA*)을 계산하여 회귀식에 통제변수로 포함시킴으로써 이러한 관계를 통제하였다.<sup>7)</sup>

또한 선행연구들에서 이용된 재량적 발생액으로 측정된 감사품질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변수들을 선정하여 통제변수로 사용하였다. 즉 선정

된 통제변수로는 대형 감사인 여부(*BIG4*), 전연도 총발생액(*TA<sub>t-1</sub>*), 기업규모(*SIZE*), 총매출액성장률(*GRW*), 부채비율(*LEV*), 영업현금흐름(*CFO*), 총자산수익률(*ROA*), 전연도 당기순손실 여부(*LOSS<sub>t-1</sub>*), 신주발행 여부(*ISSUE*) 및 외국인지분율(*FOREIGNER*)이다.

Big 4라고 불리는 대형 감사인(*BIG4*)은 소형 감사인에 비해 감사품질이 높을 것으로 예측되므로 모형식에 포함하였다(Becker et al., 1998). 즉 이 변수는 연결회사의 감사인이 Big 4 감사인 중의 하나이면 1, 아니면 0인 이산변수이다. 전연도 총발생액(*TA<sub>t-1</sub>*)은 전기의 이익조정 효과가 당기에 반전(reversal)되는 효과를 통제하기 위하여 사용하였다(Ashbaugh et al., 2003). 기업규모(*SIZE*)는 재량적 발생액과 음(-)의 관계가 있으므로(Becker

6) 금융감독원이 공시한 2007 회계연도 상장회사 감사보고서 분석에 따르면, 연결재무제표를 공시한 773개 상장기업 중 760개사가 개별감사의견과 연결감사의견이 일치하였으며, 이중 754개사는 개별감사와 연결감사 모두 적정의견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7) *ADJIDA<sub>i,t</sub>*는 t년도 기업 i의 성과조정 재량적 발생액으로서, 개별재무제표의 수치를 이용하여 수정된 Jones모형으로 추정된 재량적 발생액을 Kasznik(1999)가 제시한 모형에 따라 성과기준으로 조정하였다. 즉 *ADJIDA*는 연결회사의 개별재무제표로부터 측정된 수치이다. 이에 반해 본 연구의 회귀식에서 종속변수로 사용되는 *ADJIDA*는 연결회사의 연결재무제표로부터 측정된 재량적 발생액이다.

et al., 1998) 통제변수에 포함하였다. 총매출액 성장률(*GRW*)은 기업의 성장성이 높을수록 경영자의 이익조정이 크다고 보고한 선행연구 결과에 따라 포함하였다(윤순석, 2001). Becker et al. (1998)이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들은 재량적 발생액이 낮다고 보고하였기 때문에 부채비율(*LEV*) 변수를 포함하였다.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을 기초총자산으로 나누어 산출한 영업현금흐름(*CFO*) 변수는,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CFO*)과 발생액이 음(-)의 관계가 있다는 선행연구의 연구 결과에 따라 통제변수에 추가하였다(Chung and Kallapur, 2003). 총자산이익률(*ROA*) 변수는 당기순이익을 총자산으로 나누어 산출하였으며, 기업의 경영성결과가 재량적 발생액 추정치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기 위해 포함하였다(Kaszniak, 1999; Kothari et al., 2005). 전연도 당기순손실 여부(*LOSS<sub>t-1</sub>*) 변수는 전연도에 당기순손실을 보고한 기업이면 1이고, 그렇지 않으면 0인 더미 변수로서, 역시 전연도의 경영성결과를 통제할 목적으로 포함하였다. 신주발행 여부(*ISSUE*) 변수는 자본금이 전연도 대비 10% 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1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0인 더미 변수이다. 유상증자기업은 투자자들에게 기업의 미래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이도록 이익을 상향조정하려는 유인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통제변수로 포함하였다(최관·백원선, 1999). 마지막으로 외국인주주 지분율(*FOREIGNER*)은 연결회사의 외국인주주 지분율로서, 금융감독원 공시자료실에 공시된 연결감사보고서의 주석에서 직접 추출하였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재량적 발생액이 낮아 이익의 질이 높은 기업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이장희·김선구, 2006). 이런 효과를 통제하기 위하여 외국인지분율(*FOREIGNER*)을 회귀식에 추가하였다.

#### 4.3 연구모형

본 연구는 연결감사품질을 결정하는 요인을 두 가지 관점에서 각각의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앞서 설명한 설명변수와 통제변수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모형식을 구성하였다.

##### [1] 타감사인 활용도효과 검증모형

$$[\text{모형 1.1}] \text{ADJDA}_{i,t} = \alpha_0 + \beta_1 \cdot \text{ASSETCOVER}_{i,t} + \beta_1 \cdot \text{CONTROLS}_{i,t} + \varepsilon_{i,t}$$

$$[\text{모형 1.2}] \text{ADJDA}_{i,t} = \alpha_0 + \beta_1 \cdot \text{SALESCOVER}_{i,t} + \beta_1 \cdot \text{CONTROLS}_{i,t} + \varepsilon_{i,t}$$

$$[\text{모형 1.3}] \text{ADJDA}_{i,t} = \alpha_0 + \beta_1 \cdot \text{OTHER}_{i,t} + \beta_1 \cdot \text{CONTROLS}_{i,t} + \varepsilon_{i,t}$$

##### [2] 연결감사업무 복잡성효과 검증모형

$$[\text{모형 2.1}] \text{ADJDA}_{it} = \alpha_0 + \beta_1 \cdot \text{SUBSIDIARY}_{it} + \beta_1 \cdot \text{CONTROLS}_{it} + \varepsilon_{it}$$

$$[\text{모형 2.2}] \text{ADJDA}_{it} = \alpha_0 + \beta_1 \cdot \text{TRANS}_{it} + \beta_1 \cdot \text{CONTROLS}_{it} + \varepsilon_{it}$$

$$[\text{모형 2.3}] \text{ADJDA}_{it} = \alpha_0 + \beta_1 \cdot \text{ARAP}_{it} + \beta_1 \cdot \text{CONTROLS}_{it} + \varepsilon_{it}$$

$$[\text{모형 2.4}] \text{ADJDA}_{it} = \alpha_0 + \beta_1 \cdot \text{TRANS}_{it} + \beta_2 \cdot \text{ARAP}_{it} + \beta_1 \cdot \text{CONTROLS}_{it} + \varepsilon_{it}$$

모든 모형의 종속변수로 연결감사품질을 나타내는  $\text{ADJDA}_{i,t}$ 를 사용하였다.  $\text{ADJDA}_{i,t}$ 는  $t$ 년도  $i$

업 *i*의 성과조정 재량적 발생액으로, 연결재무제표의 수치를 이용하여 수정된 Jones모형으로 추정된 재량적 발생액을 Kasznik(1999)가 제시한 모형에 따라 성과기준으로 조정하였다.

가설1을 검증하기 위하여 [모형 1.1], [모형 1.2] 및 [모형 1.3]을 설정하였다. 여기서 설명변수인  $ASSETCOVER_{i,t}$  및  $SALESCOVER_{i,t}$ 는 *t*년도 기업 *i*의 연결재무제표 중에서 타감사인이 감사한 종속회사의 총자산 비중 및 매출액 비중을 각각 의미하며,  $OTHER_{i,t}$ 는 *t*년도 기업 *i*의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활용된 종속회사를 감사한 타감사인의 수를 나타낸다. 이 변수는 종속회사의 숫자가 아니라, 종속회사를 감사한 타감사인의 숫자이다. 예를 들어 동일 감사인이 다수의 종속회사를 모두 감사했다면 타감사인 숫자는 1로 표시된다. 가설1은 타감사인의 의존정도가 높을수록 연결감사품질이 낮을 것을 의미하므로, [모형 1.1], [모형 1.2] 및 [모형 1.3] 모두에서  $\beta_1$ 은 양(+)<sup>8)</sup>의 값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가설2를 검증하기 위하여 [모형 2.1] ~ [모형 2.4]를 설정하였다. 여기서 설명변수인  $SUBSIDIARY_{i,t}$ 는 *t*년도 기업 *i*의 연결실체에 포함된 종속회사의 수를 나타내며,  $TRANS_{i,t}$  및  $ARAP_{i,t}$ 는 각각 연결회사간 내부거래의 규모 및 채권·채무의 규모를 나타낸다. 가설2는 연결감사업무의 복잡성이 증가할수록 연결감사품질이 낮을 것을 의미하므로, [모형 2.1], [모형 2.2] 및 [모형 2.3]에서  $\beta_1$ 은 양(+)<sup>8)</sup>의 값을 가지고 [모형 2.4]에서는  $\beta_1$ 과  $\beta_2$ 가 모두 양(+)<sup>8)</sup>의 값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모든 모형에서 전술한 연결회사의 개별재무제표에서 측정한 재량적 발생액( $ADJIDA$ ), 전연도 총발생액( $TA_{t-1}$ ), 기업규모( $SIZE$ ), 총매출액성장률( $GRW$ ), 부채비율( $LEV$ ), 영업현금흐름( $CFO$ ), 총자산수익률( $ROA$ ), 전연도 당기순손실 여부( $LOSS_{t-1}$ ), 신주발행 여부( $ISSUE$ ) 및 외국인지분율( $FOREIGNER$ ), 대형 감사인 여부( $BIG4$ )를 통제변수로 공통적으로 사용하였다.

#### 4.4 회계발생액의 측정

본 연구에서는 많은 선행연구들이 사용해진 재량적 발생액(discretionary accruals)을 이용하여 감사품질을 측정하였다. 재량적 발생액을 추정하기 위한 첫 단계로 식(1)과 같이 현금흐름접근법을 이용하여 총발생액을 측정하였다(Hribar and Collins, 2002).<sup>8)</sup>

$$TACC_{i,t} = EARN_{i,t} - CFO_{i,t} \dots\dots\dots (1)$$

여기서,

$TACC_{i,t}$  : *t*년도 기업 *i*의 총발생액

$EARN_{i,t}$  : *t*년도 기업 *i*의 당기순이익

$CFO_{i,t}$  : *t*년도 기업 *i*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다음 단계로는 식(2)를 이용하여 수정된 Jones 모형(Dechow et al., 1995)에 따라 재량적 발생액을 추정하였다. 2002년부터 2006년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산업-연도별로 횡단면 자료를 이용하였

8) 연결회사와 연결대상 종속회사간, 또는 종속회사와 종속회사간에 주요 영업활동 내역이나 산업적 특성이 다를 수 있고, 이러한 차이는 개별재무제표의 통일된 형식과 계정과목을 기대하기 어렵게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연결회사가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재무제표의 계정과목간 차이를 조정하기 위하여 종속회사의 재무제표 계정과목을 재분류한다. 따라서 대차대조표접근법에 따라 연결재무제표의 총발생액을 측정하게 되면 측정오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는데, 추정과정에서 얻어지는 잔차항( $\varepsilon_{i,t}$ )이 재량적 발생액이 된다. 이 잔차항은 기업의 재량적 발생액이 산업-연도 전체의 평균적인 재량적 발생액에서 어느 정도의 편차를 가지는가를 나타낸다(최종학 등, 2005).

$$\frac{TACC_{i,t}}{TA_{i,t-1}} = \frac{\alpha_0}{TA_{i,t-1}} + \beta_1 \cdot \frac{(\Delta REV_{i,t} - \Delta AR_{i,t})}{TA_{i,t-1}} + \beta_2 \cdot \frac{PPE_{i,t}}{TA_{i,t-1}} + \varepsilon_{i,t} \dots\dots\dots (2)$$

여기서,

- $TACC_{i,t}$  : t년도 기업 i의 총발생액
- $TA_{i,t-1}$  : t-1년도 기업 i의 총자산
- $\Delta REV_{i,t}$  : t년도 기업 i의 매출액의 변화
- $\Delta AR_{i,t}$  : t-1년도 기업 i의 매출채권의 변화
- $PPE_{i,t}$  : t-1년도 기업 i의 유형자산
- $\varepsilon_{i,t}$  : t-1년도 기업 i의 잔차항

마지막 단계로는 식(3)을 이용하여 Kasznik (1999)가 제시한 모형에 따라 표본 기업의 ROA 순위를 기준으로 20개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함으로써 성과조정 재량적 발생액(performance-adjusted discretionary accruals)을 도출하였다. 성과를 조정하지 않은 재량적 발생액은 성과와 관련한 측정오차(measurement error)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정된 Jones모형을 이용하여 추정된 재량적 발생액을 기업의 성과

에 따라 조정하는 방법이 널리 사용된다(Kasznik, 1999; Kothari et al., 2005).<sup>9)</sup>

$$ADJDA_{i,t} = DA_{i,t} - \text{median}(DA_{p,t}) \dots\dots\dots (3)$$

여기서,

- $ADJDA_{i,t}$  : t년도 기업 i의 성과조정 재량적 발생액
- $DA_{i,t}$  : t년도 기업 i의 Jones모형으로 추정된 재량적 발생액
- $\text{median}(DA_{p,t})$  : t년도 ROA 순위를 기준으로 구성한 20개 포트폴리오 각각의 재량적 발생액의 중위수

#### 4.5 표본의 선정

본 연구는 2002년부터 2006년까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동 기간 중 다음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기업을 표본으로 선정하였다.

- (1) 2006년 말 현재 한국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기업으로서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인 기업
- (2) 금융·보험업을 영위하지 않는 기업
- (3) 결산일이 12월 31일인 기업
- (4) 한국신용평가정보(주)의 Kis-ValueⅡ에서 재무정보를 추출할 수 있는 기업
- (5)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DART System, dat.fss.or.kr)에서 외부감사와 관련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업

9) 성과를 조정하는 방법으로 본 연구에서 사용된 바와 같이 기업의 성과에 따라 포트폴리오를 계산한 후 포트폴리오별 재량적 발생액의 평균이나 중위수를 차감하는 방법이 가장 널리 사용된다. 발생액 추정모형(모형 (2))에 직접 기업성과 변수(ROA)를 추가하여 분석하는 방법도 상대적으로 재량적 발생액 계산이 간단하기 때문에 일부 사용되나, 이 방법론은 기업성과와 발생액 사이의 관계가 선형(linear)라는 가정을 포함한 후 분석하는 것이다. 만약 ROA와 발생액 사이에 완벽한 선형관계가 존재한다면, 후자의 방법론을 이용하여 계산된 성과조정 재량적 발생액은 전자의 방법론을 사용한 경우와 동일한 수치가 계산되게 된다.

〈표 1〉 표본현황

구 분	연 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합계
연결재무제표 작성 회사수	275	289	306	328	339	1,537

본 연구는 2006년 12월말 현재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으로서 연결재무제표 작성의무가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금융업이나 보험업에 속하거나 결산일이 12월 31일이 아닌 기업은 표본에서 제외하였다. 이들 기업은 다른 기업들과 특성이 현저하게 다르기 때문에 비교가능성의 향상을 위해 표본에서 제거한 것이다. 한국신용평가정보(주)의 Kis-ValueⅡ에서 재무정보를 추출할 수 없거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외부감사보고서를 공시하지 않은 기업도 표본에서 제외하였다. 표본기간은 2002년부터 2006년까지이다.

연결회사 및 종속회사에 대한 변수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되어 있는 연결감사보고서의 본문과 주석을 이용하여 직접 수집하였으며, 감사인에 대한 정보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의 업무자료실(www.fss.or.kr)에서 수집하였다. 그리고 기타 재무 정보는 Kis-ValueⅡ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수집하였다.

〈표 1〉은 본 연구에서 사용된 표본수를 연도별로 보여주고 있다. 단 한 개의 표본이라도 회귀분석에 사용된 경우를 모두 합하면 전체 표본은 1,537개 기업-연도이다.

## V. 실증분석결과

### 5.1 기술통계

본 연구에서 표본에 이용된 변수들의 기술통계치는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단 본 연구에서는 각 회귀분석시 마다 이용가능한 모든 표본을 분석에 사용하였고, 몇몇 기업들은 전체 회귀분석에 필요한 자료가 모두 이용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이용가능한 표본의 숫자가 회귀분석시 마다 조금씩 다르다. 그 결과 각 기술통계치에 계산된 표본의 숫자는 변수마다 모두 다르다. 따라서 각 변수마다 기술통계치 계산에 사용된 표본의 숫자를 〈표 2〉의 두 번째 열에 표시하였다. 즉 〈표 2〉에 보고된 수치들은 단 한번이라도 회귀분석에 사용된 자료들만을 대상으로 하여 계산한 수치들이다.

〈표 2〉에 따르면, 분석기간 중 기초총자산 대비 당기순이익( $NI$ )은 평균이 0.030이며, 영업현금흐름( $CFO$ )은 평균이 0.070으로 모두 양(+)의 값이었다.  $NI$ 에서  $CFO$ 를 차감하여 구한 총발생액( $TA$ )은 평균이 -0.040이었다. 연결재무제표로부터 계산된 수정된 Jones모형으로 추정된 재량적 발생액( $DA$ )은 평균은 -0.006이었으며, 성과조정 재량적 발생액( $ADJDA$ )의 평균은 0.001로 나타났다.<sup>10)</sup> 또한 개별재무제표로부터 계산된 수정된

10) 본 연구에서는 회귀분석시  $ADJDA$ 를 사용한 결과를 표로 보고하고,  $DA$ 를 사용한 결과는 주석으로 설명하였다. 이는 어떤 방법을 사용하는가에 관계없이 결과가 질적으로 거의 유사하기 때문이다.

〈표 2〉 변수의 기술통계량

변 수	표본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1분위수	중위수	3분위수	최대값
NI	1,537	0.030	0.070	-0.309	0.008	0.031	0.062	0.229
CFO	1,537	0.070	0.086	-0.167	0.018	0.063	0.114	0.376
TA	1,537	-0.040	0.084	-0.345	-0.078	-0.037	0.005	0.199
DA	1,537	-0.006	0.083	-0.317	-0.043	-0.003	0.035	0.249
ADJDA	1,537	0.001	0.070	-0.211	-0.038	0.000	0.039	0.194
IDA	1,537	-0.003	0.086	-0.326	-0.0411	0.003	0.042	0.235
ADJIDA	1,537	-0.001	0.098	-0.300	-0.053	0.000	0.053	0.290
ASSETCOVER	1,191	0.220	0.175	0.005	0.076	0.182	0.310	0.811
SALESCOVER	1,170	0.243	0.200	0.003	0.074	0.200	0.366	0.858
OTHER	1,432	0.671	0.718	0.000	0.000	0.693	1.099	3.638
SUBSIDIARY	1,432	1.495	0.798	0.693	0.693	1.386	1.946	4.174
TRANS	920	0.196	0.247	0.000	0.038	0.105	0.247	1.274
ARAP	922	0.062	0.100	0.000	0.009	0.027	0.069	0.649
BIG4	1,521	0.604	0.489	0.000	0.000	1.000	1.000	1.000
TA <sub>t-1</sub>	1,537	-0.043	0.085	-0.345	-0.082	-0.040	0.001	0.209
SIZE	1,537	20.196	1.575	17.233	19.037	19.895	21.213	24.450
GRW	1,537	0.103	0.302	-0.575	-0.032	0.062	0.173	1.890
LEV	1,537	0.546	0.194	0.081	0.416	0.550	0.688	0.985
ROA	1,537	0.030	0.069	-0.309	0.008	0.031	0.062	0.229
LOSS	1,537	0.173	0.378	0.000	0.000	0.000	0.000	1.000
ISSUE	1,537	0.099	0.299	0.000	0.000	0.000	0.000	1.000
FOREIGNER	1,537	0.135	0.164	0.000	0.006	0.057	0.227	0.667

1) 위 표에 보고된 기술통계치는 상하 1%를 벗어나는 값을 가진 표본을 극단치로 보아 winsorizing 한 후 계산된 값임.

2) 변수의 정의

- NI 당기순이익(=당기순이익/기초총자산);
- CFO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기초총자산);
- TA 총발생액(=NI-CFO);
- DA 연결재무제표 수준에서 수정된 Jones모형으로 추정된 연결회사의 재량적 발생액;
- ADJDA 연결재무제표 수준에서 Kasznik(1999)가 제시한 방법으로 도출된 연결회사의 성과조정 재량적 발생액;
- IDA 개별재무제표 수준에서 수정된 Jones모형으로 추정된 연결회사의 재량적 발생액;
- ADJIDA 개별재무제표 수준에서 Kasznik(1999)가 제시한 방법으로 도출된 연결회사의 성과조정 재량적 발생액;
- ASSETCOVER 자산 기준 타감사인 의존도(=타감사인이 감사한 종속회사 자산합계/연결총자산);
- SALESCOVER 매출액 기준 타감사인 의존도(=타감사인이 감사한 종속회사 매출총계/연결총매출액);
- OTHER 타감사인의 수 기준 타감사인 의존도(=log(타감사인수));
- SUBSIDIARY 연결대상 종속회사의 수(=log(종속회사수));
- TRANS 연결회사간 내부거래 규모(=(연결회사간 매출 + 매입 + 기타수익 + 기타비용) ÷ 연결총매출액);
- ARAP 연결회사간 채권·채무 규모(=(연결회사간 채권 + 채무) ÷ 연결총자산);
- BIG4 감사인이 BIG 4와 업무제휴관계에 있는 감사인이면 1, 아니면 0;
- TA<sub>t-1</sub> 전기의 총발생액;
- SIZE 기말총자산에 자연로그를 취함;
- GRW 총매출액의 성장률;
- LEV 부채비율(=총부채/총자산);
- CFO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영업현금흐름/기초총자산);
- ROA 총자산수익률(=당기순이익/기초총자산);
- LOSS<sub>t-1</sub> 전년도 당기순손실을 보고한 기업이면 1이고, 그렇지 않으면 0;
- ISSUE 전년도 대비 자본금의 변동이 10%이상 증가하면 1이고, 그렇지 않으면 0;
- FOREIGNER 연결회사의 외국인주주의 지분율.

Jones모형을 이용하여 추정된 연결회사의 개별 재량적 발생액(*IDA*)은 평균은 -0.003이었으며, 성과 조정 재량적 발생액(*ADJIDA*)의 평균은 -0.001로 나타났다.

타감사인의 활용도를 나타내는 타감사인이 감사한 종속회사의 총자산비중(*ASSETCOVER*)과 매출액비중(*SALESCOVER*)은 평균이 각각 0.220 및 0.243이었다. 그리고 타감사인의 수(*OTHER*)는 자연로그를 취한 값의 평균이 0.671이었는데, 이는 평균적으로 2.6( $\exp(0.671) = 2.6$ )명의 타감사인이 자회사를 감사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연결감사업무의 복잡성을 나타내는 종속회사의 수의 자연로그 값은(*SUBSIDIARY*)는 평균이 1.495이었는데, 이것은 연결회사가 평균적으로 6.4개의 종속회사를 지배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연결회사간 내부거래의 규모(*TRANS*) 및 채권·채무의 규모(*ARAP*)는 평균이 각각 0.196 및 0.062이었으며, 이를 통해 연결총매출액의 19.6% 및 연결총자산의 6.2%가 연결회사간 거래에서 발생한 것을 알 수 있다.

통제변수에 대한 설명은 <표 2>의 내용을 살펴보면 자명(self-explanatory) 하므로 지면관계상 생략한다. 단 분석기간 중에 평균적으로 60.4%의 연결회사가 Big 4 감사인으로부터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볼때 표준편차가 비정상적으로 크거나, 최소값이 아주 작거나 최대값이 아주 커서 이상치(outlier)로 판단될 수 있는 값들은 보이지 않는다.

한편 주요 변수간 피어슨 상관계수는 <표 3>에 나타내었다. 개별감사품질을 나타내는 *ADJIDA*와

연결감사품질을 나타내는 *ADJDA*는 1% 수준 이하의 유의적인 양(+의) 관련성을 보이고 있으며, 상관계수는 0.501로서 예상대로 매우 높았다. 주된 관심 변수인 *ASSETCOVER*, *SALESCOVER*, *OTHER*, *SUBSIDIARY*, *TRAN* 및 *ARAP*와 연결 재량적 발생액(*ADJDA*)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면, *ADJDA*와 *SUBSIDIARY* 및 *ADJDA*와 *SALESCOVER* 사이에는 5% 수준 이하에서 각각 유의적인 음(-) 및 양(+의) 관련성을 보이고 있다. 다만 *OTHER*와 *TRANS* 및 *ARAP*는 *ADJDA*와 유의적인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ASSETCOVER*와 *SALESCOVER*, *OTHER*의 세 감사인의 의존성 변수가 감사업무의 복잡성 변수로 사용된 *SUBSIDIARY*와 상당히 큰(최소 0.334, 최대 0.626)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런 상관관계가 분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 상관관계를 통제할 수 있는 추가 분석을 본 분석후에 별도로 실시하였다.<sup>11)</sup>

상관관계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주요 관심변수 중 일부가 감사품질과 유의적인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일부는 유의적인 관련성이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런 분석결과는 재량적 발생액에 미치는 다른 요인들을 통제하지 않은 결과이므로 일반화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후에서는 기타 요인들을 통제한 후 분석하는 다변량분석을 통해 가설을 검증한다.

## 5.2 실증분석 결과

가설 1에서는 연결감사업무의 타감사인 의존도가

11) <표 3>에서 기타 통제변수들 사이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는 변수들도 존재한다. 따라서 이들 변수들의 회귀계수를 해석하는 데는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분산팽창요소(variance inflation factor) 분석을 실시해 보았다.

(표 3) 주요변수의 상관관계 분석결과

변수	TA <sub>t</sub>	TA	AD/IDA	AD/IDA	B/G4	ASSET COVER	SALES COVER	OTHER	SUBSIDIARY	TRANS	ARAP	SIZE	GRW	LEV	CFO	ROA	LOSS <sub>t</sub>	ISSUE	FOREIGNER
TA <sub>t</sub>	1.000																		
TA		1.000																	
AD/IDA			1.000																
AD/IDA				1.000															
B/G4					1.000														
ASSETCOVER						1.000													
SALESCOVER							1.000												
OTHER								1.000											
SUBSIDIARY									1.000										
TRANS										1.000									
ARAP											1.000								
SIZE												1.000							
GRW													1.000						
LEV														1.000					
CFO															1.000				
ROA																1.000			
LOSS <sub>t</sub>																	1.000		
ISSUE																		1.000	
FOREIGNER																			1.000

1) 상관계수는 제어변수 상관계수이고 괄호안의 수치는 p값임(양측검정).  
 2) 변수의 정의는 (표 2)와 동일함.

클수록 연결감사품질은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모형 1.1] ~ [모형 1.3]을 이용한 분석 결과가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분석을 위해서는 최소자승법(ordinary least square) 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표본의 크기는 표의 하단부에 보고되어 있다.

<표 4>를 살펴보면, 연결재무제표 중에서 타감사인인 감사한 종속회사의 총자산비중으로 측정된 *ASSETCOVER*과 매출액비중인 *SALESCOVER* 및 타감사인의 수인 *OTHER*의 회귀계수는 모두 유의수준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 )의 값을 보였다. 예를 들어, 모형 [1.1]에서 *ASSETCOVER*의 계수값은 0.0243이다. 이는 *ASSETCOVER*가 0%에서 10%로 상승한다면 재량적 발생액의 값이 전기 총자산 값의 약 0.243% 상승한다는 의미이다. <표 2>에 보고된 총발생액의 평균값이 4% 이므로, 이 수치는 *ASSETCOVER*가 10%씩 상승할 때마다 전체 총발생액에서 차지하는 재량적 발생액의 비중이 약 6% ( $0.243/4=0.06075$ )씩 늘어난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결과는 타감사인의 의존정도가 증가할수록 재량적 발생액 또한 커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가설 1을 강하게 지지하고 있다.<sup>12)</sup>

통제변수 중에서 재량적 발생액과 유의적인 관련성을 보이는 변수는 *BIG4*, *ADJIDA*, *GRW*, *CFO*, *ROA*, *FOREIGNER* 등이었다. 대형 감사인이 재량적 발생액을 낮춘다는 선행연구의 발견은 본 연구에서도 확인되어, *BIG4* 변수는 유의한 음(-)의 값을 가지고 있다. *ADJIDA* 변수는 1% 수준에서

유의한 양(+ )의 회귀계수를 나타냈는데, 이는 개별감사품질과 연결감사품질이 높은 상관관계를 갖는 것을 의미한다. *GRW* 변수는 1% 수준에서 유의한 양(+ )의 회귀계수 값을 보였는데, 이것은 기업의 성장성이 높을수록 재량적 발생액이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CFO* 변수는 1% 수준에서 유의적인 음(-)의 회귀계수를 보임으로써 기업의 영업성과인 현금흐름과 재량적 발생액 사이에 체계적인 음(-)의 관련성이 있다는 선행연구 결과를 다시 한 번 확인해 주고 있다(Dechow et al., 1995). *ROA* 변수는 1% 수준에서 매우 유의한 양(+ )의 회귀계수를 나타냈는데, Kasznik(1999)이나 Kothari et al.(2005) 등의 선행연구를 뒷받침해주는 결과이다. 마지막으로 *FOREIGNER* 변수는 1% 수준에서 유의한 음(-)의 회귀계수를 나타냈다.

한편 종속회사의 규모가 증가할수록 연결재무제표에서 종속회사의 비중이 증가하거나, 종속회사 수가 많아질수록 타감사인의 수가 많아질 수 있다. 이러한 경우, 타감사인의 의존정도를 측정하는 설명변수(*ASSETCOVER*, *SALESCOVER* 및 *OTHER*)는 연결실체내 종속회사의 비중이나 수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종속회사의 수 및 규모의 증가가 타감사인의 의존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기 위해서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된 종속회사의 총자산, 총매출액 및 종속회사수를 각각 [모형 1.1], [모형 1.2] 및 [모형 1.3]에 포함한 후 회귀분석을 추가로 실시하였다. 지면관계상 별도의 표로 보고하지는 않았지만 분석결과 *SALESCOVER* 및 *OTHER*의 회귀계수는 모두 1% 수준에서 통계

12) 본 연구에서는 보수적인 측면에서 양측검증을 통해 계산한 p값을 통계적 유의성을 설명할 때 사용하였다. 그러나 t값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단측검증을 사용하여 해석해도 결론은 항상 동일하다. 또한 수정된 Jones모형으로 추정된 재량적 발생액을 이용한 경우 역시 가설 1이 강하게 지지되었다. 예를 들어 *ASSETCOVER*의 회귀계수는 0.0134(t값 2.82)이었으며, *SALESCOVER*의 회귀계수는 0.0071(t값 1.66), *OTHER*의 회귀계수는 0.0029(t값 2.43)이었다.

적으로 유의한 양(+)의 값을 보임으로써 <표 4>의 결과와 질적으로 다르지 않았다. 다만 *ASSETCOVER*는 유의하지 않았다.<sup>13)</sup>

연결감사업무의 복잡성이 연결감사품질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2를 분석하기 위하여 [모형 2.1] ~ [모형 2.4]를 이용하여 회귀분석한 결과를 <표 5>에 제시하였다.<sup>14)</sup>

<표 5>를 살펴보면, 연결감사업무의 복잡성을 종속회사의 수로 측정한 *SUBSIDIARY* 변수의 회귀계수는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값을 가지고 있다. 이는 종속회사의 수 측면에서 파악되는 연결감사업무의 복잡성이 증가할수록 연결감사품질이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가설 2를 지지하는 결과이다.<sup>15)</sup> 한편 연결회사간 내부거래 규모 및 채권·채무 규모로 측정한 *TRANS* 및 *ARAP* 변수의 회귀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sup>16)</sup>

이런 발견은 김지홍·우용상(2008)이 우리나라

상장기업의 개별재무제표를 분석하여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금액이 클수록 재량적 발생액이 증가하는 현상을 발견한 것과는 일치하지 않는 결과이다. 이런 결과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금액이 개별재무제표에 포함되어 있는 것과는 달리, 연결재무제표 작성시는 연결회사간 내부거래가 연결과정에서 서로 상계제거되기 때문에 연결재무제표의 재량적 발생액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sup>17)</sup> 이런 발견은 연결재무제표가 기업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일반적인 해석과 일치하는 발견이다.

결론적으로, <표 4>와 <표 5>의 결과를 종합하면 감사업무의 복잡성뿐만 아니라 타감사인에 대한 의존으로 인해 초래되는 의사소통 문제가 정보불균형을 가져오고, 나아가 연결감사품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연결재무제표 감사시 감사업무가 단순할수록, 그리고 모회사의 감사인이 자회사들도 대부분 감사하는 경우에 연결재무제표에서 계산되는 재량적 발생액이 감소

13) [모형1.2] 및 [모형1.3]에 각각  $\log(\text{종속회사 총매출액})$  및  $\log(\text{종속회사수})$ 를 추가하여 분석한 결과, [모형1.2]의 *SALESCOVER* 및  $\log(\text{종속회사 총매출액})$ 의 회귀계수는 각각 0.0268(t값 2.84) 및 0.0018(t값 1.27)이었으며, [모형1.3]의 *OTHER* 및  $\log(\text{종속회사수})$ 의 회귀계수는 각각 0.0073(t값 3.01) 및 0.0070(t값 2.46)이었다. 반면 [모형1.1]에  $\log(\text{종속회사 총자산})$ 을 추가한 경우 *ASSETCOVER* 및  $\log(\text{종속회사 총자산})$ 의 회귀계수는 각각 0.0089(t값 0.83) 및 0.0039(t값 2.56)으로 나타났다. 이 두 변수는 모두 자산으로부터 계산되므로, 서로 상관관계가 높아서(Pearson 상관계수 = 0.3898) 동일한 회귀식에 동시에 포함되면 다중공선성이 발생하여, 하나의 변수가 유의성을 잃는 것으로 판단된다.

14) 통제변수에 대한 분석결과에 대해서는 앞의 <표 4>의 경우와 거의 질적으로 유사하므로 지면관계상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15) 수정된 Jones모형으로 추정된 재량적 발생액을 이용한 경우에는 가설 2는 지지되지 않았다. 그러나 성과조정 재량적 발생액이 수정 Jones 모형에서 계산된 재량적 발생액 보다 우월한 수치인만큼(Kasznik, 1999; Kothari et al., 2005), 본 논문의 해석은 표로 보고한 성과조정 재량적 발생액을 이용해서 분석한 결과를 따랐다.

16) 종속회사의 수가 증가할수록 연결회사간 내부거래가 더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통제하기 위하여 [모형 2.2], [모형 2.3] 및 [모형 2.4]에 종속회사의 수(*SUBSIDIARY*)를 추가하여 분석한 결과도 이와 동일하였다.

17) 김지홍·우용상(2008)의 연구결과와 본 연구의 차이의 이유를 확인하기 위하여 연결회사의 개별재무제표 수준에서 [모형2.2] ~ [모형2.4]와 동일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모형2.2]와 [모형2.3]을 분석한 결과, *TRANS* 및 *ARAP*의 회귀계수는 각각 0.0105(t값 1.98) 및 0.0537(t값 3.66)이었으며, [모형2.4]를 분석한 결과 *TRANS* 및 *ARAP*의 회귀계수는 각각 0.0020(t값 2.57) 및 0.0049(t값 2.88)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특수관계자의 거래가 많을수록 개별재무제표의 재량적 발생액이 증가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김지홍·우용상(2008)의 연구결과와 질적으로 동일하다. 따라서 연결재무제표에서 계산한 해당 변수들이 유의적이지 않다는 본 연구의 주 발견은 김지홍·우용상(2008)의 연구와 다른 시기의 표본을 사용했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즉 개별재무제표에서는 이들 변수가 재량적 발생액에 영향을 미치지만, 연결재무제표에서는 내부거래의 영향이 상계제거되기 때문에 내부거래가 이익이나 현금흐름 수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재량적 발생액에 이들 변수의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TRANS* 및 *ARAP*의 두 변수는 <표 3>에 보고한 상관계수 분석에서도 *ADJDA*와 유의적인 관련성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이는 <표 5>에서 발견한 비유의적인 결과가 다중공선성 때문에 나타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나타낸다.

〈표 4〉 타감사인의 의존정도와 연결감사품질

[모형 1.1] $ADJDA_{it} = a_0 + \beta_1 \cdot ASSETCOVER_{it} + \beta_2 \cdot CONTROLS_{it} + \varepsilon_{it}$					
[모형 1.2] $ADJDA_{it} = a_0 + \beta_1 \cdot SALESCOVER_{it} + \beta_2 \cdot CONTROLS_{it} + \varepsilon_{it}$					
[모형 1.3] $ADJDA_{it} = a_0 + \beta_1 \cdot OTHER_{it} + \beta_2 \cdot CONTROLS_{it} + \varepsilon_{it}$					
변수	모형	예상부호	(1.1)	(1.2)	(1.3)
절편		±	0.0076 (0.31)	0.0103 (0.43)	0.0614*** (2.59)
ASSETCOVER		+	0.0243*** (2.72)		
SALESCOVER		+		0.0324*** (4.05)	
OTHER		+			0.0099*** (4.56)
BIG4		-	-0.0049 (-1.55)	-0.0056* (-1.75)	-0.0071** (2.44)
ADJIDA		+	0.0936*** (4.44)	0.0973*** (4.62)	0.0912*** (4.72)
TA <sub>t-1</sub>		-	-0.0107 (-0.55)	-0.0082 (-0.42)	-0.0124 (-0.70)
SIZE		-	0.0012 (0.93)	0.0009 (0.67)	-0.0015 (-1.19)
GRW		+	0.0229*** (3.50)	0.0215*** (3.28)	0.0148** (2.46)
LEV		-	-0.0084 (-0.85)	-0.0042 (-0.43)	-0.0057 (-0.66)
CFO		-	-0.5568*** (-19.58)	-0.5505*** (-19.34)	-0.5571*** (-22.37)
ROA		+	0.3308*** (8.38)	0.3261*** (8.23)	0.3792*** (10.50)
LOSS <sub>t-1</sub>		-	0.0022 (0.41)	0.0006 (0.12)	0.0033 (0.66)
ISSUE		+	0.0038 (0.70)	0.0037 (0.69)	0.0051 (1.03)
FOREIGNER		-	-0.0384*** (-3.14)	-0.0383*** (-3.12)	-0.0306*** (-2.84)
Adj-R <sup>2</sup>			0.4809	0.4866	0.5216
F-값			79.76	80.46	110.93
표본수			1,021	1,007	1,211

주1) 각 변수의 정의는 〈표 2〉의 각주와 동일하며, Controls는 통제변수 벡터를 의미함.

주2) 괄호 속의 수치는 t-값임.

주3) \*\*\*, \*\*, \* : 각각 1%, 5%, 10% 수준에서 유의함을 나타냄(관심변수는 단측검증, 기타는 양측검증).

주4) 불균형패널표본(unbalanced panel sample)을 이용하였기 때문에 모형에 따라 표본수가 차이가 남.

〈표 5〉 연결감사업무의 복잡성과 연결감사품질

		[모형 2.1] $ADJDA_{it} = a_0 + \beta_1 \cdot SUBSIDIARY_{it} + \beta_2 \cdot CONTROLS_{it} + \varepsilon_{it}$				
		[모형 2.2] $ADJDA_{it} = a_0 + \beta_1 \cdot TRANS_{it} + \beta_2 \cdot CONTROLS_{it} + \varepsilon_{it}$				
		[모형 2.3] $ADJDA_{it} = a_0 + \beta_1 \cdot ARAP_{it} + \beta_2 \cdot CONTROLS_{it} + \varepsilon_{it}$				
		[모형 2.4] $ADJDA_{it} = a_0 + \beta_1 \cdot TRANS_{it} + \beta_2 \cdot ARAP_{it} + \beta_3 \cdot CONTROLS_{it} + \varepsilon_{it}$				
변수	모형	예상부호	(2.1)	(2.2)	(2.3)	(2.4)
절편		±	0.0843*** (3.15)	0.0043 (0.16)	0.0096 (0.36)	0.0050 (0.18)
<i>SUBSIDIARY</i>		+	0.0108*** (4.22)			
<i>TRANS</i>		+		0.0064 (0.94)		0.0073 (0.90)
<i>ARAP</i>		+			0.0108 (0.58)	0.0007 (0.03)
<i>BIG4</i>		-	-0.0077*** (-2.64)	-0.0065* (-1.85)	-0.0067* (-1.95)	-0.0078** (-2.19)
<i>ADJIDA</i>		+	0.0951*** (4.91)	0.0878*** (3.82)	0.0893*** (3.85)	0.0883*** (3.75)
<i>TA<sub>t-1</sub></i>		-	-0.0082 (-0.46)	-0.0124 (-0.59)	-0.0159 (-0.76)	-0.0139 (-0.65)
<i>SIZE</i>		-	-0.0031** (-2.04)	0.0017 (1.19)	0.0015 (1.04)	0.0017 (1.13)
<i>GRW</i>		+	0.0162*** (2.71)	0.0254*** (3.65)	0.0245*** (3.53)	0.0252*** (3.57)
<i>LEV</i>		-	-0.0059 (-0.68)	-0.0086 (-0.82)	-0.0101 (-0.97)	-0.0085 (-0.76)
<i>CFO</i>		-	-0.5751*** (-22.25)	-0.5715*** (-18.26)	-0.5675*** (-18.11)	-0.5623*** (-17.61)
<i>ROA</i>		+	0.3828*** (10.57)	0.2793*** (6.23)	0.2853*** (6.31)	0.2784*** (6.04)
<i>LOSS<sub>t-1</sub></i>		-	0.0023 (0.46)	-0.0068 (-1.18)	-0.0058 (-1.02)	-0.0079 (-1.35)
<i>ISSUE</i>		+	0.0053 (1.07)	0.0142** (2.27)	0.0143** (2.28)	0.0142*** (2.23)
<i>FOREIGNER</i>		-	-0.0352*** (-3.25)	-0.0307** (-2.32)	-0.0305** (-2.31)	-0.0331** (-2.47)
Adj-R <sup>2</sup>			0.5204	0.5138	0.5049	0.5038
F-값			110.41	73.75	71.69	63.25
표본수			1,211	827	833	798

주1) 각 변수의 정의는 〈표 2〉의 각주와 동일하며, Controls는 통제변수 벡터를 의미함.

주2) 괄호 속의 수치는 t-값임.

주3) \*\*\*, \*\*, \* : 각각 1%, 5%, 10% 수준에서 유의함을 나타냄(관심변수는 단측검증, 기타는 양측검증).

주4) 불균형패널표본(unbalanced panel sample)을 이용하였기 때문에 모형에 따라 표본수가 차이가 남.

한다는 발견이다.

### 5.3 추가분석

본 연구에서는 연구 발견의 민감성(sensitivity) 및 강건성(robustness)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모형을 추가로 설정하였다.

$$\begin{aligned} \text{[모형 3]} \quad ADJDA_{it} = & a_0 + \beta_1 \cdot \\ & APPLICATION_{it} + \beta_2 \cdot \\ & COMPLEXITY_{it} + \beta_3 \cdot \\ & CONTROLS_{it} + \varepsilon_{it} \end{aligned}$$

여기서,

$APPLICATION_{it}$ : t년도 기업 i의 타감사인 의존도 ( $ASSETCOVER_{it}$ ,  $SALESCOVER_{it}$ ,  $OTHER_{it}$ ):  
 $COMPLEXITY_{it}$ : t년도 기업 i의 연결감사업무의 복잡성 ( $SUBSIDIARY_{it}$ ,  $TRANS_{it}$ ,  $ARAP_{it}$ ):  
 $CONTROLS_{it}$ : 연구모형 1, 2에서 사용한 통제 변수 행렬.

[모형 3]은 가설 1 및 가설 2을 동시에 분석함으로써 각각의 가설에서 사용된 설명변수가 생략된 변수(correlated omitted variables) 문제를 발생시키는지 확인할 수 있다. 즉 가설 1과 2를 동시에 분석해 보는 것이다. [모형 3]을 회귀분석하는 경우, 동일한 범주에 속하는 설명변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중공선성을 피하기 위하여 동일한 회귀모형에서는 한 가지 설명변수(즉 각 가설)에 대해 하나의 대리변수를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는 <표 6>에 제시되어 있다.

<표 6>의 결과를 보면, 타감사인에 대한 의존 정도를 나타내는  $SALESCOVER$ 는 및  $OTHER$ 는 모든 회귀모형에서 1% 수준에서 유의한 양(+)

회귀계수를 보여주고 있다.  $ASSETCOVER$ 의 회귀계수는 하나의 모형에서만 10% 수준에서 유의한 양(+)

의 값을 나타낸 것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모든 모형에서 1% 수준에서 유의한 양(+)

의 회귀계수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타감사인의 의존도가 높을수록 연결감사품질이 하락할 것이라는 가설 1을 지지하는 것이다. 연결감사업무의 복잡성을 나타내는  $SUBSIDIARY$  역시 모든 회귀모형에서 1% 수준에서 유의한 양(+)

의 회귀계수를 보임으로써 가설 2를 지지하였다. 다만 연결감사업무의 복잡성을 나타내는 또 다른 변수인  $TRANS$  및  $ARAP$ 는 대부분의 회귀모형에서 유의하지 않았다. 결과를 종합하면 총 6개의 모형에서 가설 1 및 가설 2가 모두 동시에 지지되고 있다. 이러한 발견은 모두 <표 4> ~ <표 5>에서 보고한 내용과 질적으로 거의 동일하다.

본 연구에서는 별도의 표로 보고하지는 않았지만 이 이외에도 다른 추가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표 4> ~ <표 5>의 분석에 사용된 표본 중 모든 변수들이 이용 가능한 공통표본(N=657)을 이용하여 분석을 다시 실시하였다. 둘째 이상치(outliers)의 영향을 확인해 보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이상치를 제거한 후 추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러한 분석결과는 모두 질적으로 일치하였다. 셋째 연도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도별 표본의 경우 표본의 숫자가 적기 때문에 검정력(statistical power)이 부족하다는 단점 때문에 분석의 유의성이 약해지지만, 거의 모든 분석결과가 방향성이(directionally) 일치하였다. 마지막으로, <표 2>의 상관관계를 분석해 보면 관심변수들 중 타감사인 의존도 변수들 셋은 연결감사의 복잡성 변수 중 유의적인 변수인 종속회사의 수 변수와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표 6>에서 보고된 것

〈표 6〉 추가분석

〈모형 3〉  $ADJIDA_{it} = \alpha_0 + \beta_1 \cdot APPLICATION_{it} + \beta_2 \cdot COMPLEXITY_{it} + \beta_3 \cdot CONTROLS_{it} + \epsilon_{it}$

여기서,  $APPLICATION_{it}$ 는 1년도 기업 1의 타감사인 의존도( $ASSETCOVER_{it}$ ,  $SALESCOVER_{it}$ ,  $OTHER_{it}$ )를,  $COMPLEXITY_{it}$ 는 1년도 기업 1의 연결감사업무의 복잡성( $SUBSIDIARY_{it}$ ,  $TRANS_{it}$ ,  $ARAP_{it}$ )을, 그리고  $CONTROLS_{it}$ 는 연구모형 1, 2에서 사용한 통제변수 행렬을 각각 의미함.

변수	모형	예상 부호	(4.1)	(4.2)	(4.3)	(4.4)	(4.5)	(4.6)	(4.7)	(4.8)	(4.9)	(4.10)	(4.11)	(4.12)
절편		?	0.067** (2.15)	0.017 (0.59)	0.016 (0.55)	0.008 (0.26)	0.056* (1.81)	0.018 (0.65)	0.019 (0.66)	0.007 (0.25)	0.092*** (3.45)	0.066** (2.29)	0.066** (2.30)	0.062** (2.09)

설명변수

타감사인의 존도	ASSETCOVER	+	0.011* (1.52)	0.031*** (2.94)	0.030*** (2.97)	0.030*** (2.87)									
	SALESCOVER	+				0.024*** (2.76)	0.038*** (3.86)	0.035*** (3.74)	0.037*** (3.80)						
	OTHER	+									0.007*** (3.01)	0.011*** (4.16)	0.009*** (4.02)	0.010*** (3.96)	
연결감사 복잡성	SUBSIDIARY	+	0.009*** (2.98)				0.007*** (2.34)				0.007*** (2.46)				
	TRANS	+		0.002 (0.22)		-0.002 (-0.22)	-0.004 (-0.49)		-0.009 (-0.97)			0.008 (1.12)			0.006 (0.84)
	ARAP	+			0.019 (0.97)	0.023 (0.92)		0.017 (0.83)	0.029 (1.21)				0.019 (1.02)	0.009 (0.45)	

통제변수

BIG4	-	-0.006** (-1.96)	-0.005 (-1.31)	-0.005 (-1.25)	-0.006* (-1.65)	-0.006** (-2.02)	-0.006 (-1.56)	-0.005 (-1.49)	-0.006* (-1.76)	-0.007*** (-2.60)	-0.006** (-1.91)	-0.007** (-1.97)	-0.008** (-2.24)
	ADJIDA	+	0.095*** (4.54)	0.082*** (3.39)	0.081*** (3.29)	0.081*** (3.26)	0.099*** (4.70)	0.087*** (3.58)	0.085*** (3.47)	0.085*** (3.44)	0.093*** (4.83)	0.084*** (3.72)	0.085*** (3.69)

〈표 6〉 추가분석 (계속)

<i>T</i> <sub><i>t</i>-1</sub>	-	-0.008 (-0.40)	-0.012 (-0.53)	-0.018 (-0.79)	-0.014 (-0.61)	-0.005 (-0.28)	-0.009 (-0.43)	-0.016 (-0.73)	-0.011 (-0.49)	-0.010 (-0.57)	-0.019 (-0.92)	-0.022 (-1.06)	-0.019 (-0.92)
<i>SIZE</i>	-	-0.002 (-1.30)	0.000 (0.53)	0.001 (0.56)	0.001 (0.83)	-0.002 (-1.03)	0.000 (0.38)	0.000 (0.32)	0.001 (0.76)	-0.003** (-2.29)	-0.002 (-1.08)	-0.002 (-1.03)	-0.001 (-0.89)
<i>GRW</i>	+	0.022*** (3.44)	0.017** (2.34)	0.017** (2.31)	0.017** (2.28)	0.021*** (3.25)	0.016** (2.09)	0.016** (2.08)	0.015** (2.04)	0.014** (2.45)	0.017** (2.46)	0.017** (2.37)	0.017** (2.40)
<i>LEV</i>	-	-0.007 (-0.73)	-0.010 (-0.88)	-0.013 (-1.12)	-0.014 (-1.14)	-0.004 (-0.47)	-0.006 (-0.52)	-0.007 (-0.62)	-0.011 (-0.91)	-0.006 (-0.71)	-0.008 (-0.81)	-0.012 (-1.14)	-0.009 (-0.88)
<i>CFO</i>	-	-0.551*** (-19.44)	-0.569*** (-17.06)	-0.576*** (-17.14)	-0.569*** (-16.68)	-0.546*** (-19.21)	-0.559*** (-16.76)	-0.567*** (-16.85)	-0.559*** (-16.39)	-0.574*** (-22.28)	-0.579*** (-18.67)	-0.579*** (-18.62)	-0.572*** (-18.05)
<i>ROA</i>	+	0.334*** (8.50)	0.299*** (6.27)	0.310*** (6.43)	0.306*** (6.25)	0.329*** (8.33)	0.286*** (5.97)	0.298*** (6.12)	0.294*** (5.95)	0.384*** (10.64)	0.303*** (6.78)	0.310*** (6.88)	0.304*** (6.61)
<i>LOSS<sub>t-1</sub></i>	-	0.002 (0.32)	-0.006 (-0.97)	-0.006 (-0.98)	-0.006 (-1.07)	0.000 (0.09)	-0.008 (-1.24)	-0.008 (-1.33)	-0.008 (-1.36)	0.003 (0.55)	-0.007 (-1.20)	-0.006 (-1.06)	-0.008 (-1.37)
<i>ISSUE</i>	+	0.004 (0.83)	0.011* (1.65)	0.011* (1.64)	0.011 (1.57)	0.004 (0.78)	0.011 (1.59)	0.011 (1.57)	0.010 (1.48)	0.005 (1.07)	0.012* (1.90)	0.012* (1.87)	0.011* (1.84)
<i>FOREIGNER</i>	-	-0.040*** (-3.31)	-0.029** (-1.98)	-0.0288** (-2.00)	-0.032** (-2.19)	-0.039*** (-3.25)	-0.0282* (-1.95)	-0.028* (-1.95)	-0.031** (-2.13)	-0.033*** (-3.06)	-0.027** (-2.10)	-0.027** (-2.11)	-0.029** (-2.25)
Adj-R <sup>2</sup>		0.4850	0.4969	0.4907	0.4895	0.4889	0.5039	0.4970	0.4968	0.5236	0.5301	0.5211	0.5199
F-값		74.88	56.01	55.02	49.15	75.02	56.55	55.41	49.67	103.30	72.33	70.29	62.35
표본수		1,021	725	730	704	1,007	712	717	691	1,211	823	829	794

주1) 각 변수의 정의는 〈표 2〉의 각주와 동일하며, Controls는 통제변수 벡터를 의미함.

주2) 괄호 속의 수치는 t-값임.

주3) \*\*\*, \*\*, \* : 각각 1%, 5%, 10% 수준에서 유의함을 나타냄(관심변수는 단측검증, 기타는 양측검증).

주4) 불균형패널표본(unbalanced panel sample)을 이용하였기 때문에 모형에 따라 표본수가 차이가 남.

처럼 이들 변수가 짝이 되어 회귀식에 한꺼번에 포함된 경우도 대부분 유의적인 결과가 발견되므로 다중공선성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러한 다중공선성 문제의 가능성을 추가로 확인하기 위해, 연결감사의 의존성 변수(즉 *ASSETCOVER*, *SALESCOVER*, *OTHER*)를 종속변수로, 연결감사의 복잡성 변수인 종속회사의 수(*SUBSIDIARY*) 변수를 독립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회귀분석을 통하여 양 변수들 사이의 정상적인 관련성을 추정한 후, 정상적인 관련성으로 설명되지 않는 오차항(error term) 부분을 이용하여 독립변수로 설명이 안 되는 종속변수의 부분만을 계산하였다. 원래의 의존성 변수 대신 이 오차항 변수를 이용하여 <표 6>의 분석을 재실행해 본 결과, <표 4> ~ <표 6>의 분석결과와 질적으로 다르지 않았다.<sup>18)</sup> 즉 이런 다양한 분석결과가 모두 일치한다는 것은 본 연구의 발견이 강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 VI. 결론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개별재무제표가 주재무제표이므로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관심이 그리 크지 않았으며, 그 결과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국제회계기준(IFRS)의 도입계획이 발표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는 연결재무제표가 주재무제표로 사용될 것이라는 측면에서 연결재무제표의 감사품질에 대한 연구는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본 연구에서 연결감사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분석한 결과, 타감사인인 감사한 총자산비중 및 매출액비중과 타감사인 수는 재량적 발생액과 유의한 양(+ )의 회귀계수를 보였다. 또한 종속회사의 수 역시 재량적 발생액과 유의한 양(+ )의 회귀계수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결회사간 내부거래의 규모 및 채권·채무의 규모는 재량적 발생액과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본 연구는 연결재무제표를 감사품질 측면에서 접근하여 관련 연구분야를 확장하였다는 점과 연결재무제표 및 연결감사업무와 특수하게 관련된 요소들에 주목하여 연결감사 품질을 결정하는 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는 공헌점을 갖는다. 또한 지배회사 감사인과 종속회사 감사인간의 효율적인 의사소통과 지식전이 효과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다는 측면에서 기업, 회계법인, 감독기관 및 투자자 등이 해관계자들에게 의미 있는 공헌을 기대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여러 가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연결감사품질의 대리변수로 사용한 회계발생액이 감사품질을 어느 정도까지 정확하게 측정하는 변수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Dechow et al. 1995 등).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에서 우월하다고 보고된 산업-연도별로 추정된 수정된 Jones모형과 성과조정 재량적 발생액을 이용하였지만, 측정오차 문제가 본 연구

18) 예를 들어, *SALESCOVER*의 오차항과 *SUBSIDIARY* 변수가 동시에 포함된 회귀식의 경우, 전자의 회귀계수는 0.009( $t$ 값=3.18)이며, 후자의 회귀계수는 0.024( $t$ 값=2.76)이었고, *OTHER*의 오차항과 *SUBSIDIARY* 변수가 동시에 포함된 회귀식의 경우, 전자의 회귀계수는 0.011( $t$ 값=4.35)이며, 후자의 회귀계수는 0.007( $t$ 값=3.01)로 모두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 )의 값을 나타냈다. 다만, *ASSETCOVER*의 오차항과 *SUBSIDIARY* 변수가 동시에 포함된 회귀식의 경우, 전자의 회귀계수는 0.010( $t$ 값=3.51)로 유의한 양(+ )의 값이었으나, 후자의 회귀계수는 0.011( $t$ 값=1.12)로 유의하지는 않지만 양(+ )의 값을 나타내었다.

의 발견내용에 일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설명변수 이외에도 연결 감사품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관련 변수들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이런 점들에 대해 후속연구가 수행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5년간의 자료만을 이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으므로 그 분석대상기간이 상대적으로 충분하지 않거나 경제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친 특별한 상황이 연구결과에 개입되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발견은 실무업계 및 학계, 그리고 규제 기관 등에 여러 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고 하겠다.

## 참고문헌

- 강내철 (2006), "감사인의 위험회피성향이 회계처리의 보수성에 미치는 영향," *회계와감사연구*, 43, 427-450.
- 권수영 · 김문철 (2001), "감사보수의 결정요인과 감사보수체계 변화로 인한 효과분석," *회계학연구*, 26(2), 115-143.
- 권수영 · 김문철 · 정태진 (2005), "감사시간과 감사품질이 감사보수에 미치는 영향," *회계학연구*, 30(4), 47-76.
- 김권중 · 나인철 (2002), "지분법회계와 연결재무제표의 유용성에 관한 실증적 연구," *회계학연구*, 27(4), 115-144.
- 김권중 · 나인철 · 권혜숙 (2001), "연결회계이익의 정보유용성," *회계학연구*, 26(4), 157-187.
- 김문철 · 황인태 (1998), "감사의 품질차이가 전기손익수정에 미치는 영향," *회계학연구*, 23(2), 1-26.
- 김종대 (2000), "연결재무제표 공시와 역기업규모 현상," *경영학연구*, 29(2), 85-108.
- 김지홍 (1995), "연결재무제표와 개별재무제표 정보차이," *회계저널*, 4, 11-26.
- 김지홍 · 우용상 (2008),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이익조정 및 이익반응계수에 미치는 영향," *회계학연구*, 33(3), 25-59.
- 나종길 · 최기호 (2001), "이익조정에 대한 비적정의견성향과 감사품질," *회계학연구*, 25(3), 51-89.
- 박종일 · 이명곤 · 원정연 (1999), "재량적 발생액을 이용한 감사인의 감사품질 분석," *회계와감사연구*, 289-319.
- 송인만 · 최신재 · 이명우, "연결재무제표와 지배회사 개별재무제표의 상대적 유용성," 2001년도 한국경영학회 통합학술대회 논문집.
- 신현걸 (2008),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연결재무제표와 개별재무제표의 가치관련성 비교," *대한경영학회지*, 21(3), 1109-1136.
- 신현걸 · 이만우 (2002), "지분법 적용시 연결재무제표의 유용성," *세무와회계저널*, 3(1), 67-91.
- 윤순석 (2001), "상장기업과 코스닥기업의 이익관리에 대한 비교 연구," *한국증권학회지*, 29, 57-85.
- 이경태 · 손성규 · 최종원 (2007), "소송위험이 감사보수에 미치는 영향," *회계저널*, 16(1), 53-79.
- 이장희 · 김선구 (2006), "회계이익의 질과 외국인지분율 간의 관련성 분석," *회계연구*, 11(3), 199-226.
- 전성빈 (1994), "감사받은 연결재무제표의 정보효과," *회계학연구*, 19, 51-71.
- 정규연 · 김정원 (1994), "연결재무제표의 추가적인 정보 가치에 관한 연구," *경영학연구*, 36, 83-108.
- 정석우 (1999), "감리결과와 감사품질 대응치와의 관계," *회계와감사연구*, 35, 193-217.
- 정연해 (1996), "연결재무제표 비율의 정보효과," *대한경영학회지*, 14, 267-289.
- 정종암 · 김지홍 (1991), "연결재무제표의 유용성에 관한 연구-회계담당자들의 인식 및 연결재무정보의 질적 차이에 관한 분석," *경영학연구*, 2, 127-155.
- 최관 · 백원선 (1998), "감사인의 유형과 감사품질: 감사보

- 수와 감사시간을 중심으로," *회계학연구*, 23(2), 49-75.
- 최관 · 백원선 (1999), "유상증자기업의 이익조정에 관한 실증적 연구," *회계학연구*, 24(4), 1-26.
- 최종학 (2008), "비감사서비스의 제공이 감사인의 독립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들의 비판적 검토 및 제안," *경영연구*, 23(1), 1-44.
- 최종학 · 박종일 · 전규안 (2005), "감사인의 피감사회사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감사인의 독립성에 미치는 영향," *회계학연구*, 30(1), 121-154.
- 황인태 (1995), "연결재무제표의 유용성에 관한 실증적 연구: 거래량 정보를 이용하여," *회계학연구*, 20(2), 60-75.
- 황인태 · 강성민 (2007), "Big4 감사품질의 우수성은 모든 규모의 기업에 적용되는가?," 2007년도 한국경영학회 통합학술대회 논문집.
- Ashbaugh, H., R. LaFond, and B. Mayhew (2003), "Do non-audit services compromise auditor independence? Further evidence," *The Accounting Review*, 78, 611-639.
- Becker, C., DeFond, M., Jimbalvo., and K. Subramanyam (1998), "The effect of audit quality on earnings management," *Contemporary Accounting Research*, 15, 1-24.
- Basu, S. (1997), "The conservatism principle and the asymmetric timeliness of earnings,"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24, 3-37.
- Chung, H. and S. Kallapur (2003), "Client importance, non-audit services, and abnormal accruals," *The Accounting Review*, 78(4), 931-955.
- DeAngelo, L. (1981), "Auditor size and audit quality,"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3, 183-199.
- Dechow, P., R. Sloan and A. Sweeney (1995), "Detecting earnings management," *The Accounting Review*, 70, 193-225.
- DeFond M., and K. Subramanyam (1998), Auditor change and discretionary accruals,"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25, 35-67.
- Francis, J. and D. Stokes (1986), "Audit prices, product differentiation, and scale economies: Further evidence from the Australian market,"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383-393.
- Francis J., E. Maydew, and H. Sparks (1999), "The role of big 6 auditors in the credible reporting of accruals," *Auditing: A Journal of Practice and Theory*, 18, 17-34.
- Francis, J. R., and J. Krishnan (1999), "Accounting accruals and auditor reporting conservatism," *Contemporary Accounting Research*, 16(1), 135-165.
- Habib, M., D. B. Johnson, and N. Y. Naik (1997), "Spinoffs and information," *Journal of Financial Intermediation*, 6(2), 153-176.
- Hribar, P., and D. Collins (2002), "Errors in estimating accruals: Implications for empirical research,"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40, 105-134.
- Kaszniak, R. (1999), "On the association between voluntary disclosure and data earnings management,"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37, 57-81.
- Kothari, S. P., A. J. Leone and C. E. Wasley (2005), "Performance matched discretionary accrual measures,"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39, 163-197.
- Myers, J., L. Myers, and T. Omer (2003), "Exploring the term of auditor-client relationship and the quality of earnings: A case for mandatory auditor rotation?" *The Accounting Review*, 78, 159-190.

- Accounting Review*, 78, 779-800.
- Palmrose, Z-V. (1986). "The effect of non-audit services on the pricing of audit services: Further evidence,"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24, 405-411.
- Palmrose, Z-V. (1988). "An analysis of auditor litigation and service quality," *The Accounting Review*, 63, 55-73.
- Simunic, D. (1980). "The pricing of audit services: Theory and evidence,"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161-190.
- Simunic, D. (1984). "Auditing, consulting and auditor independence,"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22, 679-702.

〈부록 1〉

회계감사 실무지침 3-780 :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실무지침  
(제정 : 2005.12.22 개정 : 2006.9.8)

(중략) 세부감사계획의 수립

6. 감사인은 전반감사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계획한 감사절차의 성격, 시기 및 범위를 설정할 세부감사계획을 개발하고 문서화하여야 한다. 이때 고려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각 감사영역에 대한 목적과 절차 그리고 시간예산 설정
- (2) 고유위험과 통제위험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와 입증절차가 제공할 확신의 요구수준
- (3) 내부통제의 시사와 입증절차의 수행시기
- (4) 회사로부터의 기대되는 지원업무의 조정
- (5) 감사보조자의 확보가능성
- (6) 타감사인 또는 전문가의 참여정도
- (7) 회사의 계속기업가정에 대한 타당성 (중략)

연결재무제표의 입증절차

8. 연결재무제표의 계정잔액 및 공시사항이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감사절차를 실시한다. 연결재무제표 입증절차의 성격·시기 및 범위는 연결회계제도와 내부통제제도의 유효성, 연결재무제표 감사위험 및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중략)

(3) 지배회사 및 종속회사의 재무제표 또는 가결산 재무제표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그리고 결산일 후 발생한 중요한 사항이 적절히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종속회사의 재무제표 또는 가결산재무제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확인한다.

① 종속회사의 재무제표를 타감사인이 감사하는 경우에는 회계감사적용지침 "600 타감사인의 감사결과 활용"의 규정에 따라 타감사인의 감사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인은 타감사인의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적격성을 고려하고 다음의 절차를 수행한다.

가. 타감사인의 해당 종속회사에 대한 독립성이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하는 독립성확인서를 징구한다.

나. 타감사인이 수행한 감사업무와 보고서를 주감사인이 이용하였다는 것을 통보하고 감사계획단계부터 주감사인과 타감사인간에 업무협조를 조정하기 위한 충분한 준비를 한다. 또한 주감사인은 타감사인에게 다음 내용을 알려준다.

- 특별히 고려해야 할 분야
- 공시가 필요한 내부거래를 파악하기 위한 절차
- 감사완료 시간계획표

다. 회계와 감사요구사항 및 보고서 작성시 요구되는 사항을 통보하고 타감사인으로부터 이러한 요구사항을 충족하였다는 확인서를 징구한다.

라. 또한 주감사인은 예를 들어, 타감사인과 적용된 감사절차에 대한 토의, 서면으로 된 감사절차 요약서(질문서 또는 체크리스트 형식으로 사용됨)의 검토, 감사조서의 검토 등을 수행한다. 주감사인은 타감사인을 방문하여 이러한 절차를 수행할 수 있으며 절차의 성격, 시기 및 범위는 당해 감사의 상황과 타감사인의 전문직업인으로서의 능력에 대한 주감사인의 인식내용에 따라 결정된다. 타감사인에 대한 이러한 정보는 타감사인의 전기 감사업무를 검토함으로써 보완될 수 있다.

마. 타감사인의 업무수행시 수용할 수 있는 품질관리정책 및 절차를 적용하고 있음이 사전에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의 수집으로 확인되었을 경우에 주감사인은 회계감사기준 적용지침 "600 타감사인의 감사결과 활용 문단 3.3"에 규정된 절차를 적용할 필요가 없다고 결론내릴 수 있다.(이하 생략)

〈부록 2〉

구분	회계감사기준 (제정: 2005.7.20 개정: 2006.9.8)	회계감사기준 적용지침 (제정: 2005.7.20 개정: 2006.9.8)
	600 타감사인의 감사결과 활용	600 타감사인의 감사결과 활용
3. 주감사인의 감사절차	3.1 감사인이 타감사인의 감사결과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감사인은 위임된 업무에 대하여 타감사인의 직업전문가로서의 능력을 고려하여야 한다.	3.1 감사인은 타감사인의 전문직업인으로서의 능력을 고려하기 위해 타감사인이 전문가단체의 회원인지 여부, 국제적 회계법인의 소속회원 또는 제휴여부, 타감사인이 소속한 전문가단체의 지명도 등을 통하여 관련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적절하다면 다른 감사인들이나 금융기관 등에 질문하거나 해당 감사인과 협의하여 보충적으로 정보를 파악할 수도 있을 것이다.
	3.2 감사인은 타감사인이 수행한 업무가 감사인의 감사목적에 적절한지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기 위한 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3.2 감사인은 타감사인에게 다음 사항을 통지해 줄 수 있을 것이다. (1) 회사 및 해당부문과 관련된 독립성 준수사항. 감사인은 타감사인으로부터 독립성준수확인서를 입수한다. (2) 타감사인이 수행한 감사절차와 보고서를 감사인이 이용한다는 것을 통보하고 감사인은 감사의 계획단계부터 타감사인간에 업무를 충분하게 조정한다. 이때 감사인은 타감사인에게 다음의 사항을 통지할 수 있을 것이다. · 특별히 유의하여야 할 감사분야 · 공시가 요구되는 내부거래를 파악하기 위한 절차 · 감사완료까지의 일정계획 (3) 회계문제, 감사문제 및 감사보고서에 보고되어야 할 사항을 통지하고 타감사인으로부터 이러한 요구사항을 충족하였다는 확인서를 징구한다.
	3.3 감사인은 타감사인이 발견한 유의적 사항들을 고려하여야 한다.	3.3 감사인은 또한 타감사인이 수행한 감사절차를 토의하며, 타감사인이 수행한 감사절차요약서(질문서나 체크리스트와 같은 형식을 띠 수 있음)를 검토하거나, 타감사인의 조서를 검토할 수 있다. 감사인은 필요에 따라 타감사인을 직접 방문하여 이러한 절차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타감사인이 수행할 감사절차의 성격, 시기 및 범위는 당해 감사의 상황과 타감사인의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적격성에 대한 감사인의 인식정도에 따라 결정된다. 타감사인의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적격성에 대한 정보는 타감사인의 과거의 감사업무를 검토함으로써 더욱 보장될 수 있다.

〈부록 2〉 (계속)

<p>3. 주감사인의 감사절차</p>		<p>3.4 감사인은 타감사인이 적절한 품질관리 정책과 절차를 실시하고, 감사인이 이에 대하여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확인하였다면 문단3.3의 절차를 수행하지 않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타감사인이 감사인과 업무제휴관계에 있는 경우 정기적으로 상호감리를 하거나 운영정책과 절차를 검증하고 일부 감사업무를 선정하여 감사조서를 검토하는 등 계속적이고 공식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을 때에는 이와 같은 감사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절차를 제공하므로 위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p>
		<p>3.5 감사인은 타감사인이 해당 부문과 관련하여 발견한 사항 또는 해당부문의 재무제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타감사인과 해당부문의 경영자와 협의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또는 감사인은 해당 부문의 회계기록이나 재무정보에 대하여 보충적 시사절차가 필요하다고 결정할 수 있다. 이러한 추가적 감사절차는 관련 상황에 따라 감사인이나 타감사인이 수행한다.</p>
		<p>3.6 감사인은 다음 사항을 감사조서에 문서화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타감사인이 감사한 부문</li> <li>· 타감사인이 감사한 부문이 회사의 재무제표에서 차지하는 유의성</li> <li>· 타감사인의 명칭</li> <li>· 중요성이 없는 부문이 있을 경우 그러한 결론의 근거</li> <li>· 감사인이 수행한 감사절차와 그 결론의 근거.</li> </ul> <p>예를 들어, 타감사인의 감사조서에 감사인이 검토한 부분이나 타감사인과의 토의한 내용을 기록한다. 그러나 문단3.4에 따라 타감사인에 대한 감사절차를 생략한 경우 그러한 사유가 감사인의 조직 내에 이미 문서화되어 있다면 별도로 감사조서화할 필요는 없다.</p>
<p>4. 감사인간의 협조</p>	<p>타감사인은 감사인이 그 감사결과를 이용할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전문가적 판단에 따라 감사인에게 협조하여야 한다.</p>	<p>타감사인은 감사인의 요청대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분야가 있을 경우 감사인에게 알린다. 법적 또는 전문가적 고려사항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감사인도 타감사인의 감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될 사항을 알게 된 경우 이러한 사항을 타감사인에게 통보할 필요가 있다.</p>
<p>(이하 생략)</p>		

## What determines Audit Quality of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Youn Sik Choi\* · Kyoung-Won Na\*\* · Jong-Hag Choi\*\*\*

### Abstract

This paper investigates the determinants of audit quality of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Given that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IFRS) will be introduced to Korea starting from year 2011 and IFRS mandate the use of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it would be very important to examine the audit quality of the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Up to now, there has been no research at all in Korea which investigates this issue because not consolidated but non-consolidated (i.e., individual) financial statements have been used as primary financial statements. The audit quality is a very important issue in Korean situation which tries hard to enhance corporate transparency and, thus, attracts more local and foreign investments into capital market.

This study makes two predictions on the determinants of the audit quality of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First, in audit work for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the parent company's auditor may be different from subsidiaries' auditors. In such a case, the auditor of parent company needs to depend on the audits of subsidiary companies performed by another auditors in order to consolidate the financial statements of subsidiaries into those of parent company. In such a case, efficient and effective communications between them could be more difficult. Thus, it might be less expected that information sharing and knowledge spillover occurs during the audit procedures if several different auditors are related to the audit of subsidiary companies. As a results, we expect that the more dependence on other auditors decreases the audit quality of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

\* Doctoral Student, College of Business Administr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 CPA, Accounting Advisory Service/IFRS Advisory Group, KPMG SAMJUNG Accounting Corp.

\*\*\* Associate Professor, College of Business Administr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Second,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represent the parent company and its subsidiaries as one economic entity and, therefore, the complexity of consolidation itself and information asymmetry between the parent company' auditor and its subsidiaries' auditors would increase in proportion with the total number of subsidiaries or the magnitude of transactions between the parent company and subsidiaries or among subsidiaries. So, we expect that the more complexity in consolidation processes decreases the audit quality of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This paper measures the dependence on other auditors is measure by the portion of total assets (or sales) audited by other auditors and the number of other auditors. The complexity of consolidation is measured by the total number of subsidiaries or the magnitude of transactions or account receivables and account payables between the parent company and subsidiaries or among subsidiaries. Finally, we employ discretionary accruals estimated by using performance-adjusted modified Jones model (Kasznik 1999; Kothari et al. 2005) in order to proxy for the audit quality. This measure has been used in various prior studies to proxy for accounting or audit quality. This measure has relative advantage compared with other possible measure of audit quality - such as audit opinion, post audit review, or earnings restatement - because this is the only measure that can be applied to general sample of firms whereas other measures are applicable to only a few firms which could be classified into outliers among general samples. In addition, during empirical analyses, we control for the audit quality of individual financial statements in order to emphasize the determinants of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For the empirical analyses, we use 1,537 firm-year observations collected over the period from year 2002 to year 2006. These are the firm-year observations that issue both individual and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and those with all the necessary data are available from KIS-Value II database. We perform both univariate and multivariate regression analyses.

Empirical results show that the dependence measures (the portion of total assets or sales which are audited by other auditors and the number of other auditors) have significantly positive coefficients. In addition, the total number of subsidiaries of complexity measures have significantly positive coefficients but the magnitude of transactions and the magnitude of account receivables and account payables have insignificant coefficients. Thus, these significant variables are turn out to be the determinants of the accounting quality of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The findings in this study are interesting and important. It is expected that the findings in this study provide valuable insights and helpful to policy-makers, academics, practitioners, firms, as well as individual and institutional investors. For the most of all, this study shows what determines the quality of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and, thus, provide insights into the possible way to improve the quality. Given that IFRS mandates the use of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the findings of this study have important practical implications as well. Both regulators and practitioners can learn from this study and use the information in this study in order to improve the transparency of firms in the future.

Key words: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Audit quality, Other auditor dependence, Complexity of consolidation